

이슈분석

2003년 상반기 노동시장 평가와 하반기 전망

정진호·강승복*

I. 2003년 상반기 노동시장 동향 및 평가

◆ 2003년 상반기 경기침체로 노동시장 지표도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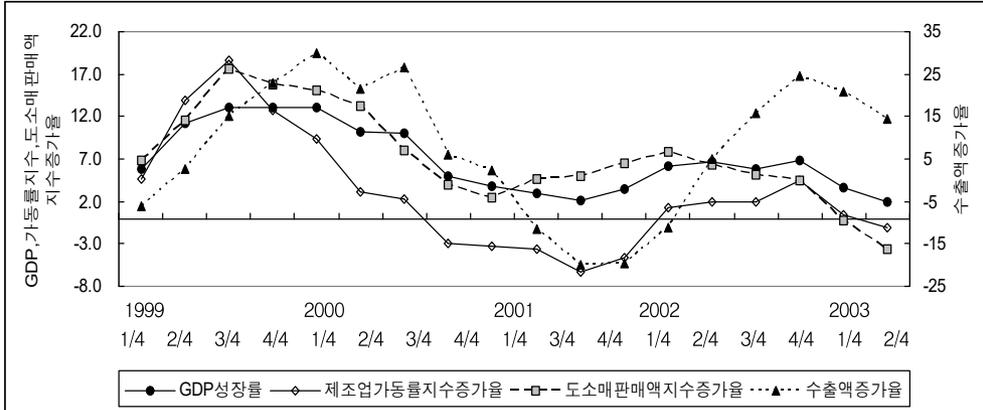
○ 2003년 상반기 GDP성장률 1999년 이후 가장 낮아

- 2002년 말 이후 지속된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2003년 GDP성장률은 1/4분기 3.7%(잠정치), 2/4분기 1.9%(잠정치)를 기록하여 상반기 2.7%를 나타냄.
- 이는 1999년 이래 상반기 성장률로는 가장 낮은 수치임.
- 내수상황을 나타내는 도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도 1/4분기 -0.2%, 2/4분기 -3.7%로 나타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음의 증가율 기록
- 내수부진의 영향은 제조업 가동률 저하로 반영되어 1/4분기 0.4%, 2/4분기 -1.1% 증가라는 저조한 수치를 나타냄.
- 반면 수출액은 2003년 1/4분기 20.8%, 2/4분기 14.6%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증가폭은 감소세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jjh@kli.re.kr),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kangsb@kli.re.kr).

[그림 1] 거시경제 지표 증가율 추이(1999.1/4~2003.2/4)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자원부.

○ 실물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2003년 2/4분기 이후 노동시장 지표 악화

- 2003년 1/4분기 중 실업률은 3.6%로 전년동기의 3.7%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실업자수도 전년동기의 829천명보다 23천명 감소한 806천명을 기록하여 1/4분기 중 노동시장 지표는 전년동기보다 개선되었음.
- 그러나 2/4분기 들어 실물경제 침체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 경제활동인구가 전년동기대비 0.2% 감소(경제활동참가율은 0.8%포인트 감소한 61.8%)하였고 상대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높은 내수부문의 침체에 따라 취업자수는 경제활동인구 감소폭보다 큰 0.5%의 감소를 기록
- 금년 2/4분기 중 실업률은 본원 전망치)보다 높은 3.3%를 기록

◆ 1999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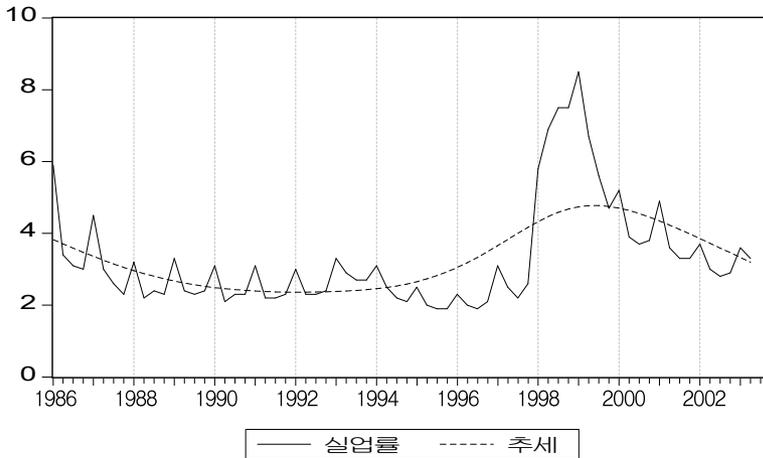
○ 2002년 이후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수 증가는 둔화세 지속

- [그림 3]에서 보듯이 최근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수 증가율은 2002년 1/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2003년 2/4분기에는 음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경제활동인구수 및 취업자수의 절대치가 감소하였음.

1) 안주엽·강승복(「2003년 노동시장 수정전망」, 『매월노동동향』, 통권 제23호, 2003. 6, 41쪽, <표 3>에서는 연중 GDP성장률을 4.2%로 가정하여 2003년 2/4분기 실업률 3.2%, 연중 실업률은 3.3%로 전망.

[그림 2] 분기별 실업률 추이(1986.1/4~2003.2/4)

(단위: %)



<표 1> 1999년 이후 노동시장 주요지표

(단위: 천명, %)

	1999	2000	2001	2002	2003	
					1/4분기	2/4분기
생산가능인구	35,757(1.2)	36,186(1.2)	36,579(1.1)	36,963(1.0)	37,193(1.0)	37,297(1.0)
경제활동인구	21,666(1.1)	22,069(1.9)	22,417(1.6)	22,877(2.1)	22,439(0.4)	23,055(-0.2)
경제활동참가율	60.6	61.0	61.3	61.9	60.3	61.8
취업자	20,291(1.8)	21,156(4.3)	21,572(2.0)	22,169(2.8)	21,633(0.6)	22,303(-0.5)
실업자	1,374	913	845	708	806	751
실업률	6.3	4.1	3.8	3.1	3.6	3.3
비경제활동인구	14,092(1.2)	14,118(0.2)	14,162(0.3)	14,086(-0.5)	14,755(1.9)	14,243(3.2)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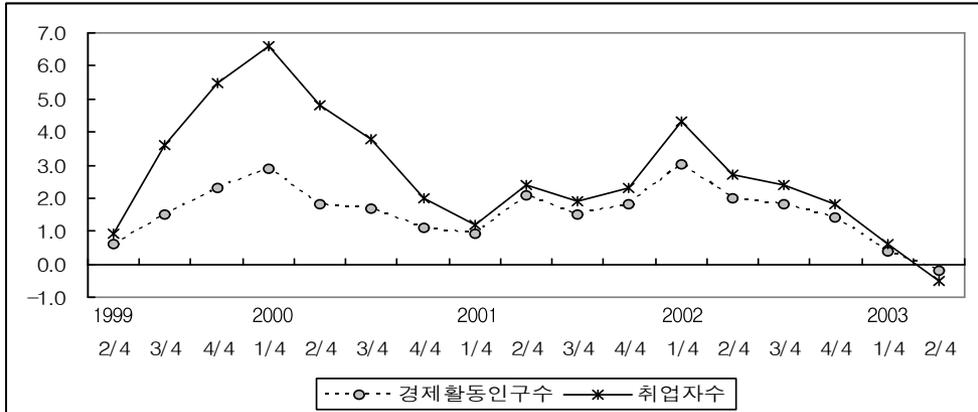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1999년 이후 취업자수 증가율이 경제활동인구수 증가율을 상회하여 왔으나 2003년 2/4분기에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함.
- 경제활동인구수 증가율보다 높은 취업자 증가율은 그 동안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반대의 경우는 앞으로 실업자수 증가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을 시사
-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1/4분기 60.7%, 2/4분기 62.6%에서 2003년 1/4분기 60.3%, 2/4분기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낮은 수치 기록

- 2002년 1/4분기 4.3%, 2/4분기 2.7%였던 취업자 증가율은 2003년 1/4분기에 0.6%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2/4분기에는 0.5% 감소

[그림 3] 1999년 이후 분기별 경제활동인구수, 취업자수 증가율 추이

(단위 : %)



◆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층 노동시장 악화

- 청년층 실업률 증가폭이 중·장년층 실업률 증가폭보다 높아
 - 2003년 1/4분기 및 2/4분기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각각 8.4%, 7.3%로 나타나 전년 7.8%, 6.3%보다 높은 수치 기록
 - 또한 2002년 1/4분기 및 2/4분기의 청년층 실업률은 중·장년층(30~54세) 실업률의 3.0배 및 2.9배였으나 2003년에는 각각 3.6배 및 3.1배로 나타나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경기부진에 따른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고 있음.
 - 한편 2003년 상반기 현재,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유희화율을 보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 전직실업자 비중은 줄어들고 신규실업자 비중이 대폭 증가
 - 전체 실업자 중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었던 전직실업자의 비중은 2003년 들어 전년보다 줄었으나,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없었던 신규실업자 비중은 1/4분기 13.2%, 2/4분기 8.0%로 나타나 전년(8.0%, 6.2%)보다 대폭 증가하였음.
 - 이는 상반기 실업자 증가가 과거의 직장경험이 있던 전직실업자보다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입하지 못한 신규실업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

<표 2> 청년층(15~29세) 노동시장 주요지표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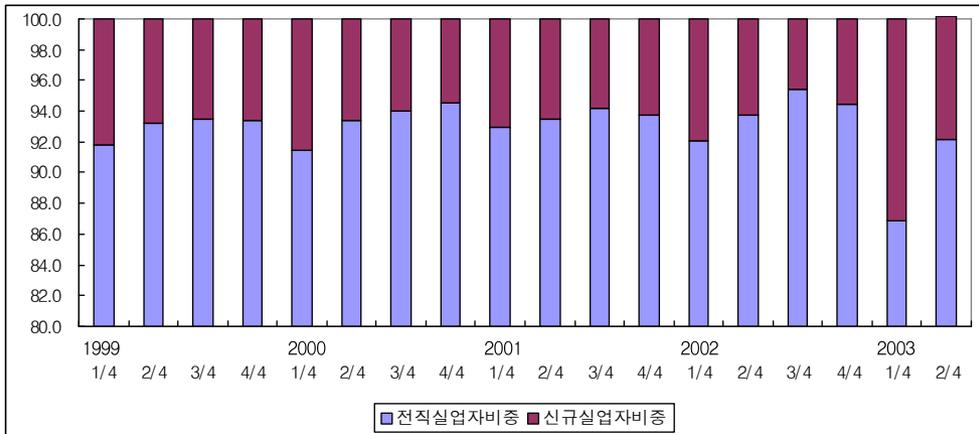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1/4분기	2/4분기
실업자수 (실업률)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424 (8.4)	362 (7.3)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5,671 (48.4)	5,387 (46.2)	5,264 (45.9)	5,281 (47.0)	5,203 (47.5)	5,140 (48.3)	5,064 (48.4)	4,950 (47.6)
유휴화율	16.6	20.7	20.5	18.3	18.2	16.9	18.9	17.2

주: 유휴화율=(실업자수+비경제활동인구 중 비통학인구수)/생산가능인구수.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4] 분기별 실업자 중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비중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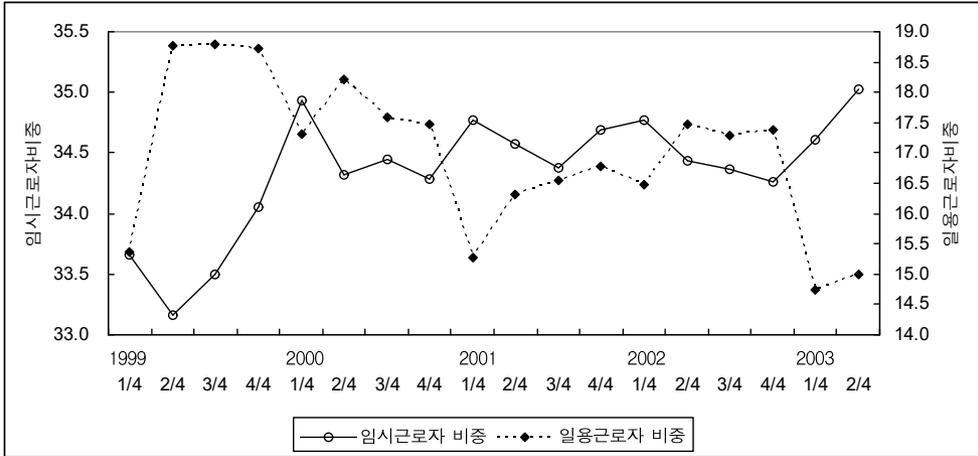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전년보다 임시직 비중은 증가하고 일용직 비중은 하락

- 임금근로자 중 임시직+일용직 비중은 2003년 1/4분기 49.4%, 2/4분기 50.0%로 나타나 전년의 51.2%, 51.9%보다 하락
- 이 중 일용직 비중은 전년보다 대폭 하락하였으나 임시직 비중은 전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전체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4분기 50.6%, 2/4분기 50.0%로 나타나 전년(48.8%, 48.1%)보다 증가

[그림 5] 분기별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비중 추이



II. 2003년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 경기가 소폭 개선될 전망이나 하반기 실업률은 3.3%로 높아질 것

○ 하반기 경제상황은 상반기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

– 2002년 4/4분기에 6.8%로 비교적 높았던 경제성장률은 2003년 1/4분기에는 3.7%, 2/4분기에는 1.9%로 낮아져 경기둔화가 지속

※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제성장률 3.3%, 연중으로는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치를 하향조정(2003. 7.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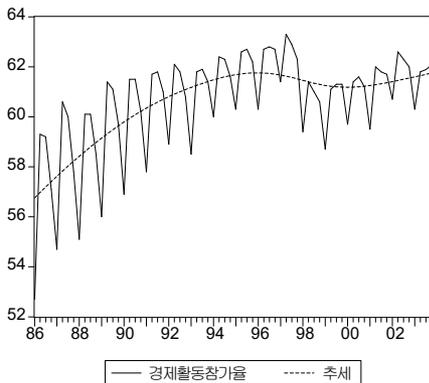
– 그러나 경기선행지수 추이를 보면, 2002년 12월(109.8) 이후 2003년 5월(107.0)까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 6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108.0)되었고 이는 하반기 경기가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

– 상반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8%로 전년동기의 2.6%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연중 3.5%)에 따르면 근원인플레이션율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농산물의 오름세가 둔화되고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3%대 초반으로 낮아질 전망

- 또한 하반기에 예상되는 국제유가안정,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 등이 내수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여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3.3%로서 상반기 2.7%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상반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하반기 노동시장은 침체가 지속될 듯
 - 노동시장은 실물경제의 변화가 일정기간 경과후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수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상반기 실물경제의 침체는 기업의 하반기 신규채용 축소 등으로 이어져 하반기 노동시장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
- 금년 하반기 실업률은 3.3%, 연중으로도 3.4%로 높아질 전망
 - 당초(2003. 6) 하반기 실업률 3.2%, 연중으로는 3.3%로 전망하였으나 2/4분기 경기하락폭이 예상보다 커 전망치를 상향조정
 - 하반기 경제활동참가율은 61.8%로 전망되며 연중으로는 61.5%로 전망됨.
 - ※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4/4분기를 정점으로 하락추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안정되는 추세로 향후 경기변동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등락하지는 않을 것
 - 취업자 증가율은 상반기의 0.005%에서 하반기에는 0.03%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며 연중으로는 0.01%로서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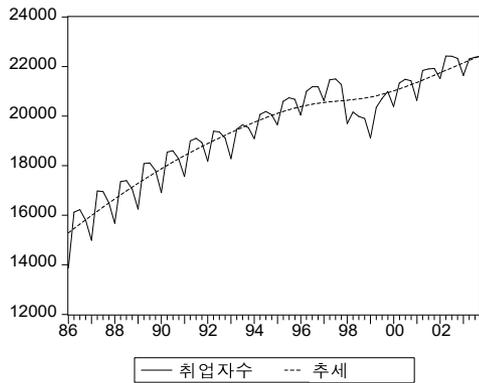
[그림 3] 분기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그림 4] 분기별 취업자수 추이

(단위 : 천명)



<표 3> 2003년 하반기 노동시장 전망

(단위 : 천명, %)

	2002	2003		
		연평균p	상반기	하반기p
생산가능인구	36,963(1.0)	37,335(1.0)	37,245(1.0)	37,425(1.0)
경제활동인구	22,877(2.0)	22,942(0.3)	22,747(0.1)	23,137(0.5)
경제활동참가율	61.9	61.5	61.1	61.8
취업자	22,169(2.8)	22,172(0.01)	21,968(0.005)	22,377(0.03)
실업자	708	770	779	760
실업률	3.1	3.4	3.4	3.3
비경제활동인구	14,086(-0.5)	14,393(2.2)	14,316(2.5)	14,288(1.9)

주 : p는 전망치,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부표 1>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추정결과

변수명	경제활동참가율	로그(취업자수)
상수	6.619(2.002)***	1.565(0.497)***
전년 동분기값	0.895(0.031)***	0.762(0.066)***
경제성장률	0.036(0.018)*	
로그(GDP)		0.313(0.047)***
전년 동분기 로그(GDP)		-0.243(0.049)***
실업률	-0.040(0.053)	
1/4분기 가변수	-0.055(0.120)	-0.005(0.004)
3/4분기 가변수	-0.010(0.070)	0.001(0.002)
4/4분기 가변수	0.051(0.086)	-0.007(0.004)
경제위기	-0.821(0.305)***	
경제위기 ²	0.116(0.051)**	
R ²	0.973	0.993
\overline{R}^2	0.966	0.992
DW	1.827	1.876

주 : 1) ()안의 수치는 계수추정치의 표준오차.

2) ***, **, *는 각각 유의수준 0.01, 0.05, 0.10에서 계수추정치가 유의함을 의미.

3) 경제위기는 1998년 1/4분기부터 경과기간(월)으로 1999년 2/4분기까지.

4) R²는 결정계수, \overline{R}^2 는 조정된 결정계수, DW는 더빈왓슨 통계량임.